

신용평가체계 개편, 소상공인부터 시작해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 개최 -

- ① 8월말부터 시범운영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준비상황 점검
 - 종전 1.8조원(7개 은행)에서 **2.2조원(16개 은행)**으로 시범운영 대상 **확대**
 - **은행권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26.10월~), **지역신보 보증**(‘27년~)에도 SCB 활용
 - ② **파산면책 공공정보 등록기간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청취
- 【국정과제】 59-2.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문턱 완화
 (“소상공인 등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한 금융지원 강화”)
 【대통령 업무보고】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시범운영

I. 회의개요

금융위원회는 '26.7.27.(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 및 제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T/F를 개최하여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체계(SCB) 은행권 도입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일시/장소] '26.7.27.(월) 10:00 /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디지털금융정책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이민령 특별지원심의관, 서울회생법원 이주영 판사
 - (포용금융 위원) 안준상^{사회연대은행이사}, 권오형^{윙크스톤대표}, 박기태^{변호사}
 - (신용평가T/F 위원) 정성규^{서울대교수}, 문영배^{前나이스평가정보연구소장}, 이수진^{금융연구원}
 - (소상공인 유관단체) 소상공인연합회^{상근부회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금융본부장}
 -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나이스평가정보, KCB, 서울보증보험
 - (시범운영 기관) [기존 7개 은행] 기업·농협·하나·신한·우리·국민·제주^{부행장}
 [추가 9개 은행] 수협·케이·카카오·토스·부산·iM·경남·광주·전북^{부행장}
 [기타 준비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전무}

II. 주요 논의사항

[①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 준비상황 점검]

금융위원회는 지난 4.9일 「신용평가체계 개편 3차 T/F」를 통해 매출,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울보증보험, 은행권,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거쳐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준비 중이다.

첫째, 시범운영 참여 은행이 대폭 확대되어 총 16개 은행 2.2조원 규모 사업자 대출에 SCB를 적용키로 하였다. SCB 적용 시범운영은 '26.8월말부터 은행별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 당초 참여기관 [기업·신한·국민·우리·농협·하나·제주] '26.8월말부터 시범운영 개시
추가 참여기관 [케이·카카오·토스·수협·iM·부산·경남·광주·전북] '26.하반기 중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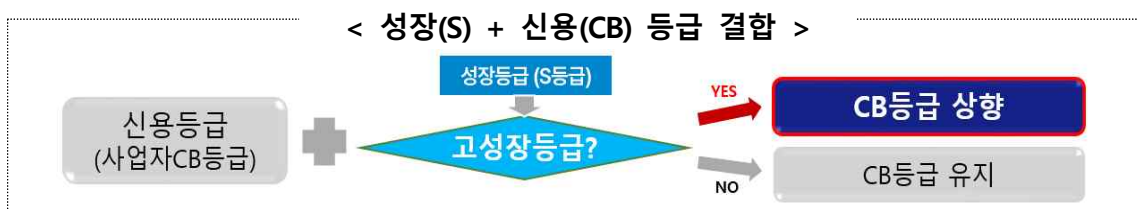
※ [별첨1] 은행별 SCB 적용 소상공인 대출상품

< SCB 개요 >

◆ **(개념)** 매출, 업종, 상권 등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업종별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

* 매출 상세분석, 상권 상세분석, 사업 지속성, 사업 업력, 근로자 수, 고객 인지도 및 수요, 유통플랫폼 성장지수(방문/재방문, 북마크 등 종합고려) 등

◆ **(활용방식)** 매출, 업력 등 다양한 설명변수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성장등급(S등급) 산출[신정원] → CB사는 S등급과 CB등급을 결합한 SCB등급을 금융회사에 송부 → 성장등급(S등급)이 높은 경우 기존 신용등급보다 **CB등급 상향** 적용[금융회사]



◆ **(혜택)** 높은 성장등급은 대출승인, 금리·한도 등 우대 (상위 CB등급에 해당하는 혜택)

둘째,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심사시 개인사업자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자 업종·업력·매출액 등 비금융정보를 심사하는 전용 사잇돌대출* 도입 계획을 발표('26.4.27일,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한 바 있으며, '26.10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同 사잇돌대출에도 SCB 성장등급을 활용하여 성장성 있는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업계와 함께 모색 중이다.

* 종전 사잇돌대출 대비 대출한도 확대(2천만원 → 3천만원)
연간 공급규모 확대(年 1,000억원 → 최대 1,500억원)

셋째, '27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평가에도 SCB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존의 재무·신용도 중심 평가 외에 상권 정보 등 비금융정보로 평가 항목을 다변화하기 위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준비 중인바,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시스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27년부터 SCB를 지역신보 보증심사·평가에 다각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넷째, 은행 등 금융권이 소상공인 대출심사에 SCB를 적극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SCB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및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8월 중 개정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SCB 활용 절차를 구체화하고 면책 등을 규정한 「SCB 운영 가이드라인*」도 8월 중 마련·배포될 예정이다.

* 주요내용: 대출심사시 SCB 등급 활용 프로세스(상위등급에 금리, 한도 등 우대), SCB 등급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처리한 경우 임직원 면책 등

신진창 사무처장은 “포용금융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제”라며, “AI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시스템(SCB)은 포용과 혁신을 동시에 구현하는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CB가 은행권을 넘어 전금융권에 안정적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제도를 고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② 파산·면책 공공정보 등록기간 합리화 방안]

금번 신용인프라 분과회의에서는 지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26.6.17), 신용인프라 분과 현장 의견청취('26.6.9~11) 등에서 제기된 개인파산·면책 관련 공공정보 등록기간 합리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7.4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에서 법원의 회생절차를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기존 5년간 신용정보원에 집중·공유되는 불이익 정보를 조기 삭제키로 하고 관련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약 10.5만명의 성실상환 개인회생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파산·면책의 경우에도 불이익 정보 등록·공유기간(5년)을 단축하여 면책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반면, 파산·면책은 개인회생과 달리 상환불능자의 부채에 대한 완전한 책임 면책으로 법적·경제적 차원에서 회생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파산·면책 관련 공공정보를 장기간 등록*하는 다수의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분과 회의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이를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美·日·英 등 주요국들은 파산·면책 정보를 통상 5~10년간 등록·공유하나, 최근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공유기간 단축(6개월~3년)

III.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 및 신용평가체계 개편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소비자단체,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과거 금융이력 중심의 신용평가를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한 미래 성장성 중심의 평가체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1 : 시범운영 참여기관별 SCB 적용 여신상품(案)

별첨 2 : 신용인프라분과 민간위원 명단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서나윤 (02-2100-2620)
	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원규 (02-2100-2625)
담당 부서 <공동>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진애 (02-2100-2990)
	중소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정형준 (02-2100-2993)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안원호 (044-204-7821)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용희 (044-204-7861)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이 석 (02-3145-7120)
	디지털금융총괄국	담당자	팀 장	지행호 (02-3145-7135)
	신용정보원 기업금융데이터부	책임자	부 장	엄재철 (02-3705-5950)
		담당자	팀 장	오동찬 (02-3705-5959)
		담당자	팀 장	신현철 (02-3705-5838)
	신용정보원 신용데이터부	책임자	부 장	유형우 (02-3705-5917)
		담당자	팀 장	최재철 (02-3705-5911)
	서울보증보험 상품지원부	책임자	부 장	조원석 (02-3671-7333)
		담당자	팀 장	염정아 (02-3671-7326)

	SCB 적용 예정 여신상품 (안)
기업	i-ONE소상공인대출, BOX개인사업자신용대출, IBK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 IBK소상공인 희망Dream대출 등
우리	우리 사장님 대출, 우리 Oh!(5) 클릭 대출, 우리카드 가맹점 우대 대출 등
신한	개인사업자 대상 일반자금대출(대면·비대면) 등
국민	KB투게더론, KB일사천리 소호대출, KB더드림소호대출, KB소상공인신용대출 등
농협	NH 기업성장론, NH중소기업보증서담보대출 등
하나	하나더소호 가맹점대출, 성공사다리대출, 하나뿐인 사장님대출, '포용성장, 함께성장 하나더소호대출' 등
제주	JJB가맹점우대론, 탐나는 개인사업자대출 등 (전용 사업자대출 출시도 검토중)
케이	사장님 신용대출
카카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토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수협	NEW땡큐사장님대출
경남	모바일 개인사업자신용대출 등
iM뱅크(대구)	으뜸사장님대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부산	(가칭) ONE사장님 바로담보대출(신규), (가칭) 소상공인 성장금융대출(신규)
광주	(가칭) KJB사장님사잇돌대출(신규) 등
전북	JB사장님 마이너스대출, JB 탄탄대로 사업자 대출

	성 명	소 속	주요 경력	비고
1	최 현 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서울대 농가정학 석사, 美 퍼듀대 소비자학 박사,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분과장
2	이 철 원	어피닛 대표	· 트루벨런스(어피닛) 대표	현장 전문가 (핀테크)
3	권 오 형	윙크스톤파트너스 대표이사	· 어니스트 AI CFO	
4	김 민 정	크레파스솔루션 대표	· 크레파스솔루션(대안 CB) 대표	
5	전 지 선	모우다(p2p) 대표	· 모우다(p2p) 대표	핀테크
6	문 미 란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소비자단체
7	안 준 상	사회연대은행 (함께만드는세상) 상임이사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자치 특별위원회 위원, 사회연대은행 사무국장	
8	신 하 나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소상공인 전문 법률 자문 위원)	법조계 /소비자
9	정 성 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서울대 공법학과 학사, 美 컬럼비아대 로스쿨 석사, 금융위 감사자문위원	법조계
10	이 수 진	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	· 서울대 인류학·경제학과 학사, 美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금감원 마이데이터허가 외평위원, 금융위 옴부즈만 위원	연구계
11	유 경 원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서강대 학·석사,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학계
12	최 경 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 성균관대 법학 학사·박사, 美 듀크대 로스쿨 법학 석사,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장	
13	정 성 규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 서울대 통계학과 학사, 美 노스캐롤라이나대 박사, 서울대 과학데이터 혁신 연구소 소장	